



"신세도 신세같이 못 지면서 누이네 폐만 끼친다"

뜻: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제대로 도움도 못 받고, 괜히 귀찮게만 한 상황이 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폐 · 도움 · 실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신	세	도	↓	신	세	같	이	↓	못	↓	지	면	서
누	이	네	↓	폐	만	↓	끼	친	다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신	세	도	↓	신	세	같	이	↓	못	↓	지	면	서
누	이	네	↓	폐	만	↓	끼	친	다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		↓					
			↓					↓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ㅅㅅ] [ㅅㅅㅅㅇ] [ㅁ] [ㅈㅁㅅ] [ㄴㅇㄴ] [ㅍㅁ] [ㄱㅅㅅ]

웹에서 보기

